

일주문



일지일불 사경대회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10월 12일 일지일불 사경대회를 대구 팔공산 씨네80 자동차극장에서 팔공산 승사 경대회를 개최한다. (053)986-9575



제18회 만해추모제 예산 수덕사 주지 지은 스님은 8월 31일 만해 한용운 선사 생가에서 제18회 만해추모제를 봉행했다.

김종규 이사장 대통령표창 수상

주미대한제국공사관 환수 기여 공로로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 <사진>이 문화유산신탁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대통령 표창을 지난 8월 20일 받았다.

이번 대통령 표창은 미국의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102년 만에 되찾는 등 우리 문화유산을 환수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문화유산신탁 이사장을 맡으며 신탁 회원 증가 운동을 통해 애초 300여명에서 현재 30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최근 김 이사장은 전남 명물 보성여관을 신탁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문화재 보존에서도 새로운 유행을 개척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군중교구장 정우 스님 1억원 전달

아름다운동행에 군중교구지원금으로



조계종 군중특별교구장 정우 스님(구룡사 회주)이 군중교구지원금에 써달라며 1억원을 지정기탁했다.

정우 스님은 9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전달식을 가졌다.

최근 전국 군부대 법당을 둘러본 정우 스님은 "사단급 이하 법당은 비인가 건물을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노후화로 지붕이 누수되고 건물이 균열되고 바닥이 붕괴되는 등 보강공사가 필요한 상태"라며 "논산 호국 연무사 불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지만 집중투자로 인해 현재 군중교구에서 재정적 역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아름다운동행에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통일음악제는 진호국가불사에 부합”

제 3회 통일음악예술제 여는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법등정사

“총지중은 창종이래 매일 ‘국태민안’과 ‘조국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나라 불공을 공공서원으로 제정하고 모든 법회의례 속에 넣어 이를 서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통일음악예술제도 총지중의 진호국가불사(鎮護國家佛事)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청소년, 새터민,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을 초청해 이들이 음악을 통해 모두 하나가 되는 대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9월 28일 오후 2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열리는 제 3회 통일음악예술제의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평화를 노래하다’란 주제로 열리는 올 이번

9월 28일 국립박물관 극장 ‘용’ 서 9월 27~28일 단양 경로법회도

통일음악예술제는 △여는 소리 △평화의 숲 △상생의 소리 등 총 3부로 나눠 진행된다. 또한 이번 음악제에는 원영석 국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가 지휘를 맡고, 정형 스님(소프라노), 김재섭(바리톤), 이용구(단소), 소리꾼 김용우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이번에 3회째를 맞은 통일음악제는 2011년 제 1회 대회를 서울 KBS홀에서, 2012년 제2회 대회를 부산 동해중학교에서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총지중은 이에 앞서 9월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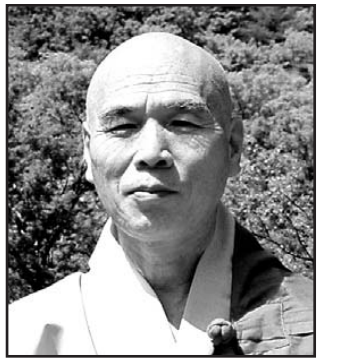
28일 양일간 단양 대명콘서트 제 10회 경로법회를 연다.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마련된 이날 법회는 65세 이상의 총지중도들이 대상이며, 전국 37개 사원에서 500여 어르신들이 동참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실버 레크리에이션 △국악 예술제 △사원별 장기자랑 △초대 연예인 공연 △문천유 △통일음악예술제 관람 등이다.

법등 정사는 “우리 종단은 호국불교의 이념외에도 가정의 바탕인 경로효친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전국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단 하루만이라도 최대한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지리산 칠불사 회주 통광 스님 입적

하동 칠불사 회주이자 대강백인 제월 통광 스님이 9월 6일 오전 8시 45분 지리산 칠불사에서 입적했다. 법랍 54세, 세납 74세. 영결식과 다비식은 10일 오전10시 칠불사에서 제월문도회장으로 봉행된다.



1963년 범어사 강원을 졸업한 스님은 1963년 범어사에서 수선 안거이래 10하안거를 성만했다. 1975년 동국대학교 역경연수원을 수료하고, 1975년 탄허스님의 화엄경 역경교열에 참여했으며, 1977년 탄허대종사로부터 강백을 전수받았다.

1978년부터 1995년까지 칠불사를 복원하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주지를 역임했고,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쌍계사승가대학 강주를 지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칠불사 주지 및 회주 소임을 맡고 있다.

—입증계— 생本無生何好生(생본무생하오생) 滅本無滅何惡滅(멸본무멸하오멸) 生滅好惡寂滅處(생멸호오적멸처) 法身光名遍法界(법신광명범법계)

덕수궁에서 우리 문화를 배우다

문화재청 ‘정관헌에서 명사와 함께’ 진행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덕수궁 정관헌(靜觀軒)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문화계 명사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정관헌에서 명사와 함께’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9월 13일에는 안휘준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글 현대미술 무엇이 문재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현대

미술의 현주소에 관해 이야기한다. 9월 27일에는 <만나라 이웃나라>의 저자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교수가 35년간 ‘만나라 이웃나라’ 완간의 소회를 밝힌다.

10월 4일은 박동춘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소장이 ‘차 문화, 그 속에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차 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안휘준 교수 이원복 교수 박동춘 소장

각각 강연은 90분 동안 진행되며 주제별 강연과 청중이 함께 대화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문화재청은 사전 예약자를 180명으로 제한한다. 사전 예약은 오는 덕수궁관리소 누리집(www.deoksugun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노덕현 기자

“명랑운동회로 이주민 화합 도모”

마주협 9월 15일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Happy World Together’ 제5회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이 9월 15일 잠실 종합운동장내 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권영구)와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 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도제)가 지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이주민 근로자 및 다문화 가족 800여명이 참석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든다. 이에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도제 스님을 9월 2일 인사동 누리에서 만나 이번 대회의 특징과 불교계 이주민 정책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올 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다문화지원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몽골,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 8개 국가 약 800여명의 이주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에는 축구, 400M 계주 및 줄다리기 등을 통해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명랑운동회로 구성된다.

스님은 “그동안 서로 경쟁을 부추기는 계급들이 화합을 해치는 경우가 있었

다. 이번 대회에는 누구나 참여해 웃고 즐길 수 있는 운동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마주협은 방글라데시 종교평화 비상대책위원회와 김포 방글라데시 커뮤니티와 협력해 수도시설지원과 방글라데시 폭력사태 피해자를 지원한다.

또한 불교계 이주민 실태조사 및 각종 상담 지원도 계획 중에 있다. 이에 이주민에 대한 기초정보와 실태 확인 및 향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02)722-2206

정혜숙 기자

전무송, 마사이족에게 생명의 물 선사

“지구촌에는 아직도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불자 배우이자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무송 씨(72)가 케냐 마사이족에게 생명의 물을 선사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전무송 씨(좌)와 남정덕 지구촌공생회 사무국장

전무송 씨는 9월 5일 고양시 아람누리극장에서 아프리카 케냐 우물관리 후원금 100만 원을 지구촌공생회에 전달했다.

전무송 씨는 전달식에서 “존경하는 월주 스님과 활동가들의 보살행이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좋은 결과로 회향되었으면

한다”며 밝게 웃었다.

지구촌공생회 남정덕 사무국장은 “무엇이든 사람의 손길이 자꾸 닿아야 생기를 유지하듯이 생명의 우물도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전무송 선생님의 기부가 목마름으로 가득한 케냐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미얀마 문화부 장관 목탁 스님과 환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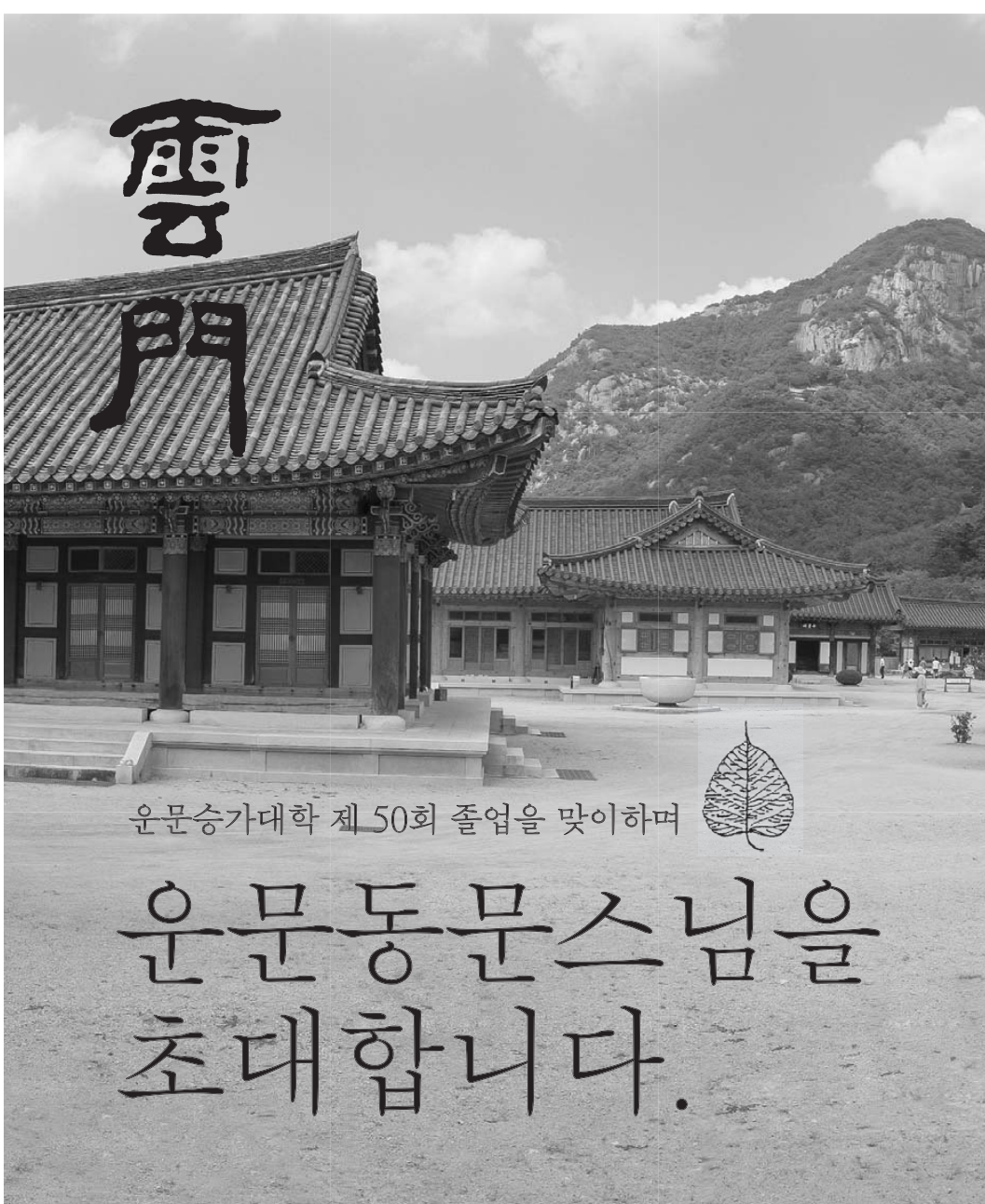
미얀마 문화부 장관이 9월 4일 청진동 미얀마문화원(원장 목탁)을 방문했다. 9월 5일부터 광주에서 진행되는 ‘제1회 한국 동남아시아 문화부 장관 회의’ 참석차 내한한 우 탄 씨에 부장관은 내한 첫 방문지로 미얀마문화원을 방문해 목탁 스님과 환담했다.



목탁 스님(좌)과 우탄 씨에 부장관

미얀마문화원을 방문한 부장관은 한국 미얀마 불교교류와 봉사활동에 대한 목탁 스님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으며 목탁 스님은 앞

으로도 상호 교류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우 탄 씨에 부장관은 일정을 마치고 7일 출국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운문 동문스님 여러분,

해가 가고 달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것은 기억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운문에서의 추억은 또렷해지기만 합니다. 그 시간, 돌이켜 보면 빛나던 초심의 시간이었으며, 긴장되고 두근거려던 젊음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운문승가대학에서는 1964년에 비구니 전문강원 명칭으로 1회 6명이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50회가 되었으며, 졸업생 수는 1,850여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만큼은 모든 동문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하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론 반백년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지혜의 가르침을 주시던 총명하신 스승님께서 아직 제자들의 범명, 얼굴, 성격을 기억하고 계시며, 후박꽃 향기 속에 묻어둔 우리의 이야기들도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동문스님 여러분,

올 동문회에는 선후배의 그리움을 전하는 자리, 현재를 사는 동문들의 열정을 경청하는 자리, 미래를 살아갈 우리 후배들의 꿈을 설계하는 자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모두 동참하시길 고대합니다.

동문회기간 | 2013년 9월 24~25일(1박 2일)

개최일시 | 2013년 9월 24일 오전 10시

장 소 | 운문사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신원리 1789) / 054.372.8800

雲門山雲門寺

www.unmunsa.or.kr

동문회장 우송
운문승가대학 학장 홍룡 합장
주지 일진

운문승가대학 제 50회 졸업을 맞이하며

운문동문스님을
초대합니다.